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이건홀딩스(039020)

종이·목재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평가데이터(주)

작성자

신지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이건홀딩스(039020)

글로벌 종합 건축 자재 기업

기업정보(2022/04/04 기준)

대표자	안기명
설립일자	1988년 04월 14일
상장일자	2000년 05월 0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일반 제제업
주요제품	합판, 합판마루, 창호, 조림, 원목, 베니어, 파레트 외

시세정보(2022/04/04 기준)

현재가(원)	5,450
액면가(원)	1,000
시가총액(억 원)	1,161
발행주식수(주)	22,584,709
52주 최고가(원)	7,750
52주 최저가(원)	3,670
외국인지분율	0.73%
주요주주	박승준 29.74% 박영주 13.42% 박은정 7.94% 안기명 0.31% 외

■ 자연친화적인 건축자재 개발에 힘쓰는 중

(주)이건홀딩스는 198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17년 4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지주, 창호, 목재, 조림, 에너지, 파레트 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 (주)이건창호, 181억 원 규모 개포4단지 재건축 창호공급 수주

주요 종속회사 중 하나인 (주)이건창호는 2021년 2월 181억 1,800만 원 규모 PL(플라스틱) 창호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2019년 (주)이건창호의 전체 매출액 1,520억 원 대비 1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상대방은 GS건설이며, 공급대상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공급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

■ (주)이건창호, 고품격 커튼월 파사드 시리즈 'EFS 40' 출시

2022년 1월, (주)이건창호는 최근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에 우수한 기밀 및 단열 성능을 갖춘 커튼월 신제품 'EFS 40'을 출시했다. (주)이건창호의 '파사드 시리즈'는 2020년 8월 출시했던 EWW 150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EFS 40까지, 빌딩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파사드를 위한 라인업이며, 'EFS 40'은 오랜 기간 창호화 커튼월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연구진들의 설계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특히, 커튼월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수평바와 수직바 결합 구간의 누수에 대비하기 위해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소재의 Intersection Gasket을 새롭게 개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제품 대비 누수 방지와 기밀 성능까지 강화된 특징을 갖추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	4,703	52.83	166	3.53	49	1.04	2.80	0.72	138.85	179	6,917	14.74	0.38
2020	4,135	-12.07	75	1.82	9	0.22	-0.12	0.14	132.49	-8	6,769	-648.75	0.43
2021	4,749	14.84	387	8.15	144	3.04	2.47	1.05	134.26	324	7,111	16.34	0.73

기업경쟁력

높은 브랜드 인지도

- 시스템창호 : 국내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점유율 1위
- 마루 : 국내 신축 아파트 마루 분야 점유율 1위

다수의 글로벌 망 보유

- 칠레, 솔로몬아일랜드 등에 위치한 관계사 통해 양질 원자재 공급받아 가격 및 조달 측면 경쟁력 확보

핵심기술 및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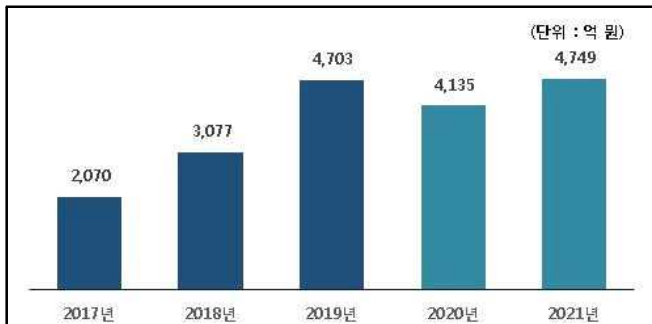
핵심기술

- SUPER 진공유리를 적용한 고단열 시스템창호 개발
- 외관, 채광, 외부 조망 등을 고려한 BIPV 개발
- 친환경 합판과 무늬목을 활용한 프리미엄 마루 개발

주요사업

- 지주 : 자회사 배당금, 경영 자문 및 브랜드 수수료 외
- 창호 : 시스템창호, 특수창호, 유리, 커튼월 외
- 목재 : 합판(PB, MDF), 마루(강마루, 원목마루)

매출실적



시장현황

국내 건설자재 시장 현황

- 주요 건설자재 시장 규모
- 금속창호 : 2015년 8,874 → 2019년 11,812억 원
- 플라스틱창호 : 2015년 12,109 → 2019년 14,971억 원
- 일반합판 : 2015년 2,811 → 2019년 2,953억 원
- 마루용판재 : 2015년 1,934 → 2019년 2,390억 원

최근 변동사항

(주)이건창호, 대규모 창호공급 수주

- 2021년 2월, 181억 1,800만 원 규모 PL창호공사 수주
- 공사 지역 : 개포주공 4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계약 기간 : 2020년 11월 28일 ~ 2023년 2월 28일

(주)이건창호, 커튼월 신제품 출시

- 2022년 1월, 고품격 커튼월 파사드 'EFS 40' 출시
- 수평바와 수직바 결합 구간 EPDM 소재의 Intersection Gasket 적용 → 누수 방지, 기밀 성능 강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ENVIRONMENTAL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제품 및 공정 개선 - 자원이용, 안전보건 등 환경 이슈 가능성은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편 - ESG 경영 세계적 이슈	- 친환경 제품 : 그린 파레트용 친환경 수지, 마루 대판용 친환경 접착제, 합판 생산성 개선용 친환경 접착제 개발 - 환경(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 관련 법규 준수 - ESG 동향조사, 도입시기, 조직구성 등 검토 필요
 SOCIAL	- 제품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기술보호, 유출 및 정보보안	- 관계사 ISO 9001, 환경표지인증, KS 등 인증 보유 -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상여금, 장기근속자 포상 등) - 지역사회 발전 : 이견음악회,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 창덕궁 문화재 가꾸기, 사랑의 연탄 배달, 무료급식 등 운영
 GOVERNANCE	- 준법경영,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 -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소통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적인 공개 - 연구 자율성 보장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으로 산업 성장과 혁신에 기여

한국평가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I. 기업현황

친환경 건축 자재 전문 기업, 이견홀딩스

동사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지주, 창호, 목재, 조림, 에너지, 파레트 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친환경 건축 자재 분야에서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주)이견홀딩스(이하 ‘동사’)는 1988년 4월에 (주)이견창호시스템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2008년 7월 (주)이견인테리어를 흡수합병한 후, 2009년 3월 상호를 (주)이견창호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 4월 창호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이견창호를 신설하였다. 분할준속회사인 동사는 (주)이견창호에서 (주)이견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고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동사는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지주, 창호, 목재, 조림, 에너지, 파레트 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문	회사	설립일	주요 사업	자산총액
창호	(주)이견창호	2017년 4월	창호의 제조, 판매, 시공	179,186
	EAGON WINDOWS&DOORS CANADA CO.,LTD.	2015년 4월		368
목재	이견산업(주)	1972년 12월	합판 제조, 건축자재 수입/판매, 마루 제조/시공	254,280
	Eagon Lautaro S.A.	1993년 4월	합판 제조, 판매	81,122
	Eagon USA Corp.	1980년 3월	목재 무역, 판매	10,679
조림	Eagon Pacific Plantation Ltd.	1996년 2월	조림, 원목개발, 베니어 제조/판매	97,082
	Eagon Resources Development Co.,(S.I) Ltd.	1983년 12월		69
에너지	이견에너지(주)	2009년 12월	집단에너지	66,411
파레트	(주)이견그린텍	2010년 12월	물류포장재 제조, 판매	52,290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 대표이사 정보 및 주요 주주 현황

동사의 대표이사 안기명(1956년생, 남)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두산메카텍(주) 전무, 이견산업(주) 부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기준 최대 주주는 29.74%의 지분을 보유한 박승준(1967년

생, 남)이며, 동인은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하였다. 또한, 현재 (주)이건창호, 이건에너지(주), (주)이건그린텍의 대표이사직과 이견산업(주)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오랜기간 동업계에서 종사해 온 이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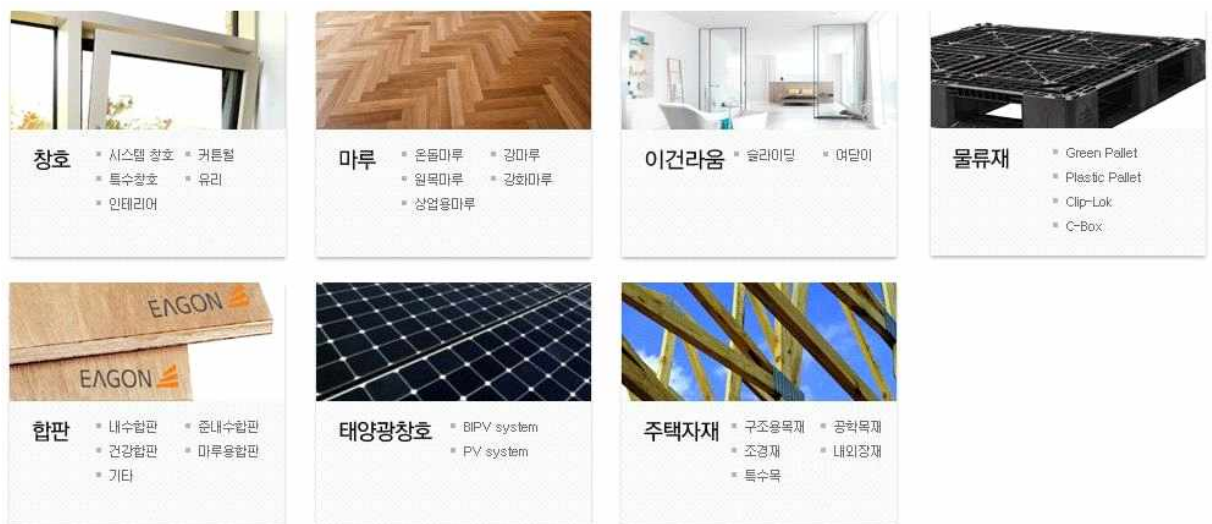
[표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성명	동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박승준	특수관계인	6,717,556	29.74
박영주	특수관계인	3,030,237	13.42
박은정	특수관계인	1,792,977	7.94
박인자	특수관계인	393,431	1.74
안기명	대표이사	68,760	0.31
계		12,002,961	53.15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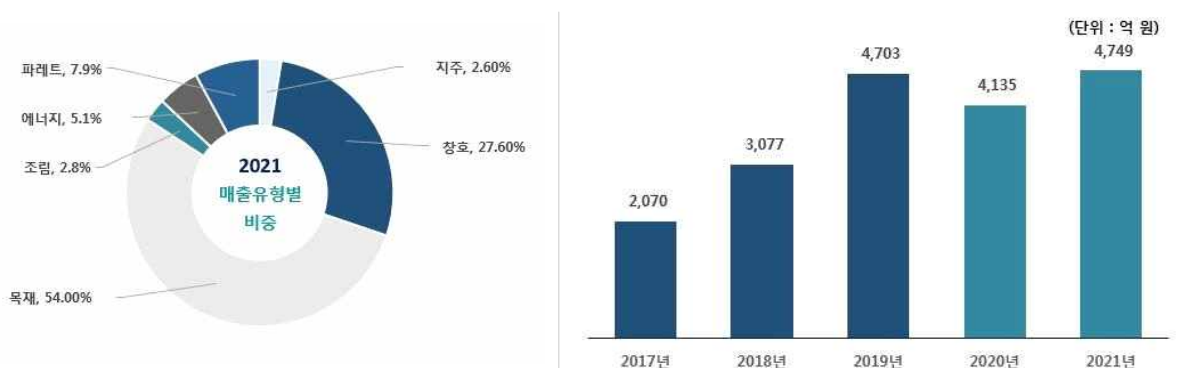
■ 주요 제품 및 매출 현황

[그림 1] 주요 제품들



* 출처 : 동사 홈페이지,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그림 2] 매출 유형별 비중(좌), 연도별 매출현황(우)



*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표. 시장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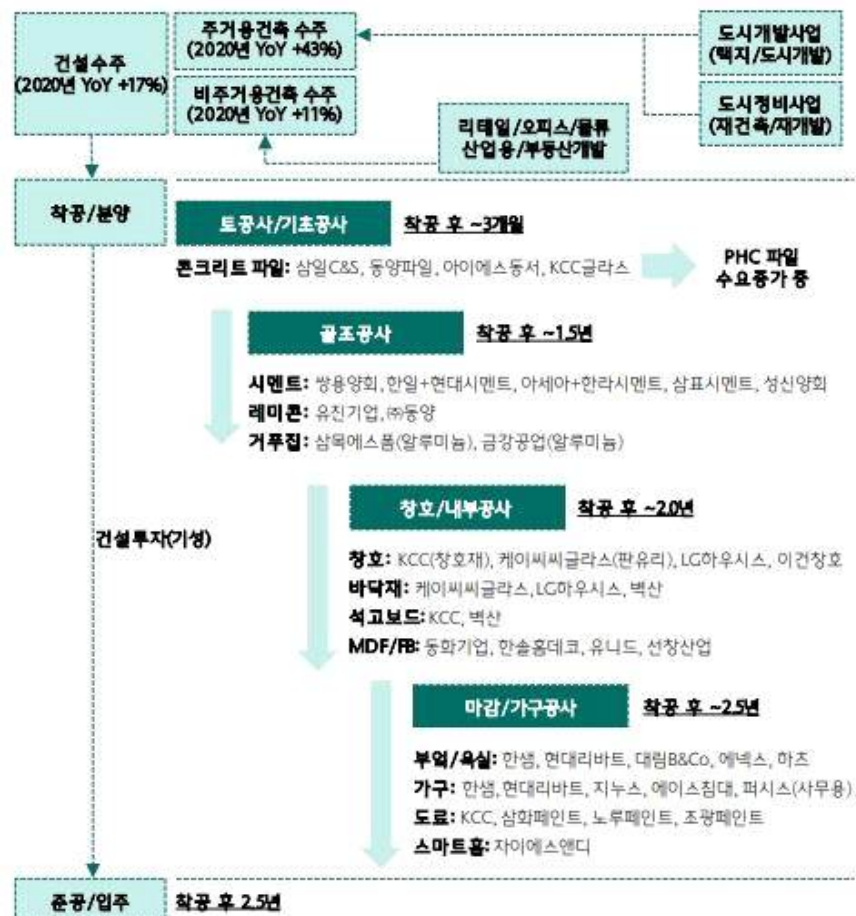
건설자재 시장의 경우 건설시장의 파생수요로 인해 건설 투자의 증감률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건설 수주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2021년에는 건설자재 수요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

■ 전방산업 경기에 따라 경기변동이 이루어지는 산업

건설자재산업은 대규모 자본, 설비가 요구되는 자본집약형 장치산업으로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2020년 건설수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 기록을 전망하고 있어, 2021년에는 건설자재 수요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등으로 건설자재 수요 감소를 가속화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건설자재산업은 수요산업인 건축경기에 따라 경기변동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기 순환 체계와 산업 경기 동향에 따라 순환주기를 갖는 경기변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국내 건설 산업과 건설자재 산업의 투자 Value chain



* 출처 : 하나투자증권

■ 2020년 건설경기 전반적 호조, 연장 기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2020년에 16.9% 증가한 194.1조 원을 기록했는데, 2021년에도 10.5% 증가한 214.4조 원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2년에도 0.2% 소폭 증가한 214.8조 원으로 명목 금액상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1년 건설수주의 상승 기조가 2022년에도 일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자재와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처별로 공공 수주는 0.9% 증가하는 반면 민간 수주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중별로는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4.1%,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비주택 건축 수주는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2022년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 원, %)

2022년 건설수주 전망								
구분	2019	2020			2021			2022(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481	210	31.1	521	268	316	584	589
민간	1180	61.7	803	1420	762	798	1560	1559
토목	495	182	265	447	257	275	532	554
건축	1166	645	849	1494	772	840	1612	1594
주거	654	376	552	928	389	475	864	874
비주거	511	269	297	566	383	365	748	720
계	1660	827	1114	1941	1029	1115	2144	2148
증감률 (%) 전년 동기비)								
공공	135	139	49	84	273	18	121	09
민간	52	150	248	204	235	-06	99	-01
토목	67	-162	-47	-97	414	38	191	41
건축	78	281	283	282	197	-1.1	79	-1.1
주거	158	388	440	419	34	-139	-69	12
비주거	-10	156	66	107	425	228	322	-37
계	74	148	185	169	244	01	105	02

→ 공공토목 증가 영향

→ 주택수주 회복

→ 비주택 건축수주 조정

2022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연간
건설투자(조원)	1253	1400	2652	1273	1368	2641	1254	1387	2641	2704
증감률(%)	-44	09	-17	16	-23	-04	-15	14	00	24

* 출처 :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건설투자는 2021년에 급격한 자재가격 상승과 토목투자의 부진으로 정체되었으나, 2022년에는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건축 등 건축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토목투자도 완만히 회복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건설투자는 2.4% 늘어난 270.4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주거용 건축투자의 경우, 2021년 2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2022년 전반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반도체 공장 건설이 활발하고 상업용 건물 건축이 증가한 영향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토목투자의 경우, 정부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공사가 활발하고 2021년 위축된 민간 플랜트 공사도 2022년에 회복되어 전반적인 증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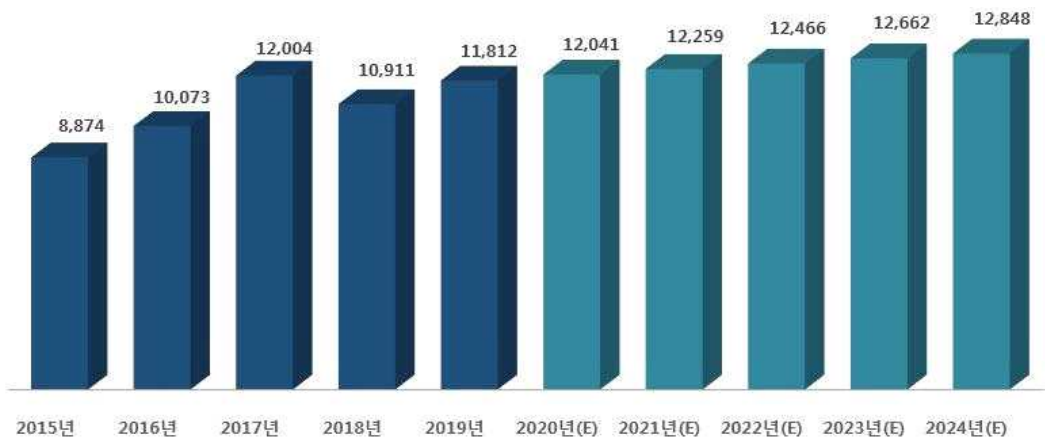
■ 동사의 주요 건설자재 시장 현황 및 규모

▶ 창호

창호 부문은 건설자재의 제조, 판매 및 시공업으로 전방산업인 건설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및 제조업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관련 산업을 구분해보면, 원자재 관련 산업, 가공 및 조립 산업, 판매 및 유통 산업, 설계 및 시공 산업 등으로 나뉘어진다. 창호 산업은 건설경기 및 주택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택의 거래량 및 아파트 분양 등 건축시장은 정부의 규제 및 주택 공급축소 정책으로 인해 전년대비 주요 건축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건축법 규제 강화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종류의 창호들 중에서도 국내 금속제 창문 출하금액은 2015년 8,874억 원에서 2019년 11,812억 원으로 연평균 7.41%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1.7%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848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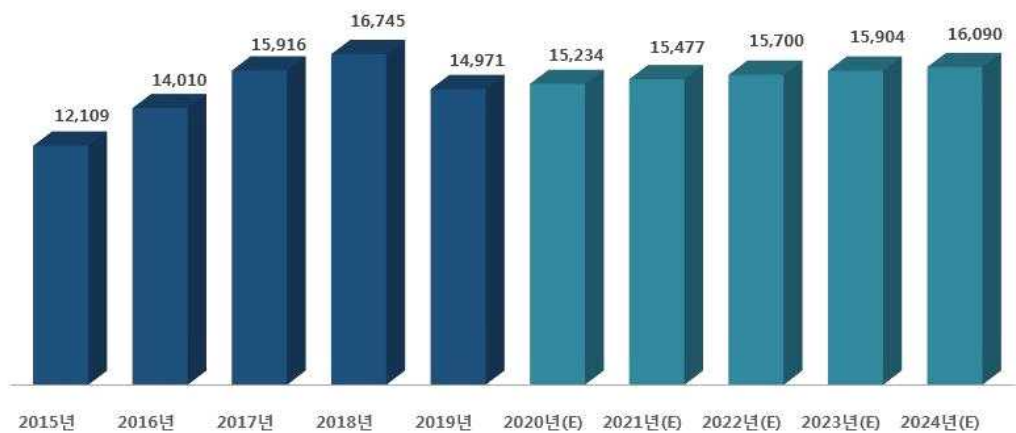
[그림 5] 국내 금속제 창문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국내 플라스틱 창문 출하금액은 2015년 12,109억 원에서 2019년 14,971억 원으로 연평균 5.45%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1.45%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09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국내 플라스틱 창문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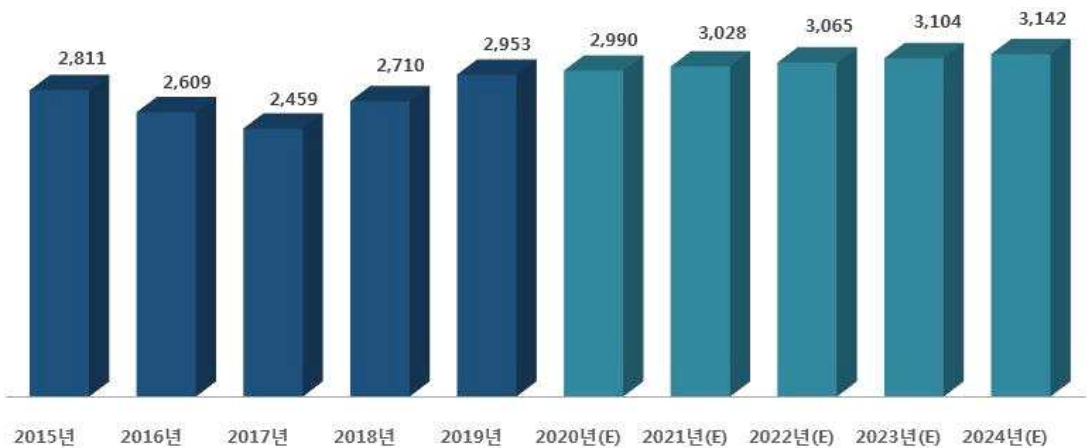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목재(합판, 마루용 판재)

국내 합판 시장은 수입상품 외의 국내 공급은 동사를 포함 성장기업(주), 선창산업(주) 3개 회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상대적으로 저가인 대체재(PB, MDF)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상품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으나, 오랜 업력과 인지도를 고려하면 국내기업들의 시장지위는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일반 합판 출하금액은 2015년 2,811억 원에서 2019년 2,953억 원으로 연평균 1.25% 증가하였으며, 동일 연평균 적용 2024년에는 3,14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국내 일반 합판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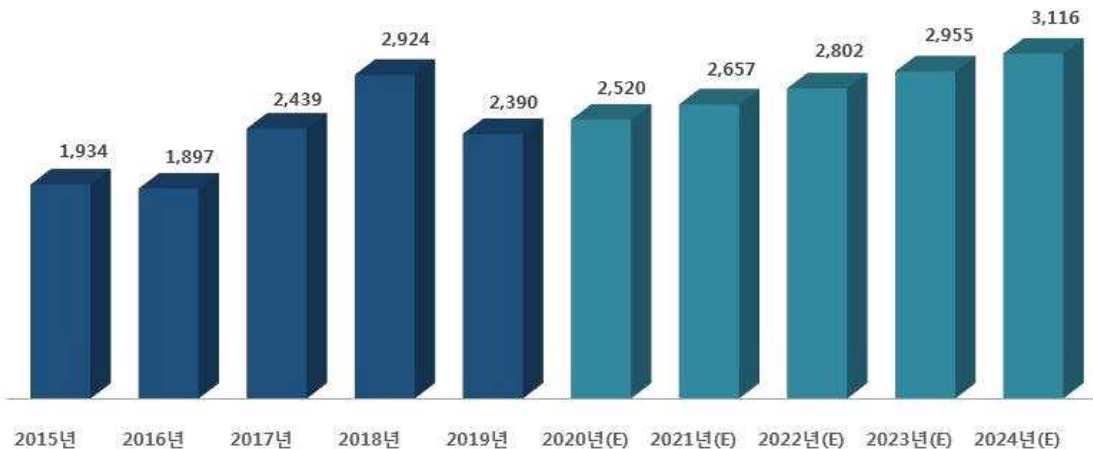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또한, 합판마루 바닥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기본 사양에 마루판을 포함시키면서 주거공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 선호추세에 힘입어 PVC(Polyvinyl Chloride)장판을 대체하면서 점진적인 매출신장을 보여 왔다. 마루바닥재 시장은 친환경·고급화 경향으로 인하여 PVC 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합판마루와 강화마루가 PVC 시장을 대체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마루용 판재 출하금액은 2015년 1,934억 원에서 2019년 2,390억 원으로 연평균 5.44% 증가하였으며, 동일 연평균을 적용 2024년에는 3,11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국내 마루용 판재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Ⅲ. 기술분석

나무와 자연,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최근 고품격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자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동사의 주요 관계사들은 기존의 건축 자재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주거 트렌드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 건설 자재 기술의 개요 및 동향

건설 자재의 범위와 유형은 크게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재와 그 뼈대를 치장하는 마감재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재는 건물의 하중을 감당하고,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내강성, 비축성, 불연성, 내열성 등이 우수해야 하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마감재는 하중과 관계없이 주로 피복 및 치장을 목적으로 건물의 내·외부에 마감되는 자재로서 용도별로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바닥재, 창호재, 방수재, 배선재, 전기 및 조명기구, 냉·난방기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감재에서 외장재는 건물의 외관을 꾸미는 자재로, 어떤 외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의 분위기가 달라지며, 주의 환경과 건축주의 경제적 여유, 시공기술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며 건물의 첫인상과 퇴색, 환경/기능변화 등에 따라 공공/상업성 변화 가능성을 보인다.

또한, 내장재는 일반적으로 구조재와 달리 표면이 거칠지 않고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외벽이나 지붕처럼 직접 외부와 접촉하지 않으므로 비바람이나 악천후 등 외부환경의 기상 조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내벽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공간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그 성격과 이용도에 따라 내벽재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건설자재는 재료별로 구분하면 구조재, 철강·비철재, 내·외장재, 도료, 창호재, 방수·보온 단열재, 전기설비재, 기타재, 시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건설자재 재료별 분류

분류	소분류	분류	소분류
구조재료	골재, 시멘트, 혼화재, 조적, 지분재, 콘크리트 가공제품, 말뚝, 구조용 목재	철강·비철 재료	강재, 판재, 선재 및 봉강용접봉, 구조용강판, 볼트너트류, 주철·주물·주강 등
내·외장재	합판, 내외장 패널, 바닥재, 미장재, 지류	도료	바탕도료, 방청도료, 표면도료, 희석제
창호재	창 및 문, 창호 부자재, 창호용 실링재, 유리	방수·보온 단열재	아스팔트, 방수재, 보온·단열재, 흡음재
급배수 및 위생설비	밸브류, 이음관, 급배수, 냉난방관, 위생설비 보일러, 펌프 등	전기설비 재료	전선, 선로용품, 등기구류, 배선, 전기기구
기타재료	접합·접착제, 가설재, 부품류, 금속재료	시약	시약·시험기구

*출처 : ECO융합섬유연구원, 건축물 내장 복합소재의 기술 및 시장 동향

한편, 건설자재를 건설공사 공정별로 살펴보면, 공통자재, 건축자재, 토목자재, 기계설비자재, 전기통신자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토목공사 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봉강, 형강, 강판 등 철강자재와 알루미늄, 동 등 비철자재, 골재, 시멘트, 레미콘, 목재, 가설재 등이 있으며, 건축용 공사에 주로 활용되는 자재는 벽돌/블럭재, 석재/타일재, 미장방수재, 지붕/유리재, 철물재, 창호재, 내외장재, 단열재, 바닥재, 실내장식재, 조립식 건물재, 도료 등이 있다.

[표 4] 건축공사 주요자재 품목

구분	대분류	소분류
건축 자 재	벽돌/블럭 등	시멘트벽돌, 특수벽돌, 점토벽돌, 경량단열벽돌블럭, 자연석 전통블럭, 압출성형시멘트판, 조립식PC판 등
	석재/타일	대리석복합타일, 테라조, 화강석, 대리석, 내장타일, 외장타일, 바닥타일, 석재타일, 특수타일 등
	미장방수	아스팔트방수재, 벤토나이트방수재, 시트방수재, 에폭시방수재, 뽕칠재, 단열피복재, 균열보수재 등
	지붕/유리	슬레이트, 점토기와, 골함석, PVC골판, 유리단열필름, 판유리, 복층유리, 유리블럭 등
	철물	도어록, 도어크로저, 플로어, 경첩, 창호철물, 핸드레일 등
	창호재	자동문, 회전문, 방화문/판넬, 특수문, 알루미늄샤시, 플라스틱창, 목재문, 셔터 등
	내외장재	금속내외장재, 법랑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 불연내장마감판, 금속천정재, PVC천장판, 기타천장판, 석면시멘트판, 흡음재 등
	단열재	폴리에스터단열재, 온돌판넬, 발포폴리스틸렌, 미네랄울보온재, 유리섬유보온재, 폴리우레탄보드, 발포보온재 등
	바닥재	콜크바닥재, 이중바닥재, 비닐타일, 금속마루판, 목재마루판 등
	실내장식재	벽지, 인테리어필름, 블라인드, 커튼 등
	조립식건물	칸막이, 조립식판넬, 샌드위치판넬 등
	도료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 에나멜페인트, 락카, 우레탄도료, 아크릴도료, 에폭시도료, 기타합성수지도료, 도료충전재 등

*출처 : ECO융합섬유연구원, 건축물 내장 복합소재의 기술 및 시장 동향

■ PDP 및 F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창호에 적용

열과 소리는 매질이 전달되어 움직이는데, 진공유리는 그 안의 매질을 없애 열과 소리 등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만든다. 일반 유리창은 공기를 넣어 단열하지만 대류 때문에 단열성이 떨어지게 되며, 진공유리는 아예 유리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 열전달이 없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진공유리는 PDP 및 F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기술이었으나, 작은 사이즈에서는 가능했지만 창호와 같은 대면적 건자재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동사의 주요 관계사인 (주)이건창호는 주력제품인 시스템창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창호에 적용되는 유리의 성능을 높였다. 특히, 국내의 PDP/FED 업체의 기술을 도입해 이를 건자재에 적용하였고, ‘SUPER 진공유리’를 개발하였다. (주)이건창호의 ‘SUPER 진공유리’는 유리 사이의 공기를 빼내는 일반적인 생산방식에 비해 진공 챔버에서 유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진공도가 1,000배 향상되며,

단열성능이 기존 제품보다 7배 우수한 특징이 있다. 이 진공유리는 주거용 건물에서 일사취득을 높이고 열 손실을 줄여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였다.

최근 고품격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자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이건창호는 기존의 창호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주거 트렌드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9] (주)이건창호의 'SUPER 진공유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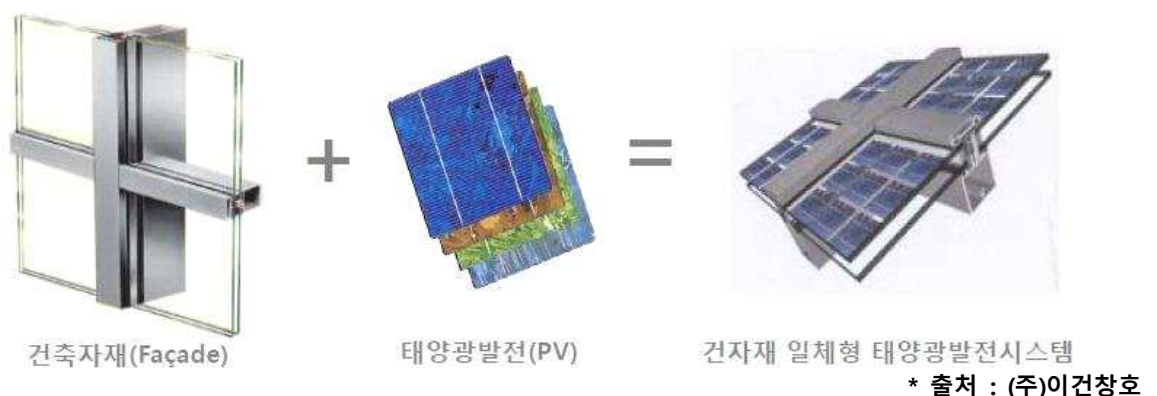


* 출처 : 이건설토어

■ 건물 유리를 대신하는 태양광 모듈 BIPV

(주)이건창호의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태양전지셀을 구성하는 특수모듈로, 태양광발전은 물론 건축물에 요구되는 단열성능, 발전기능을 통합해 독특하고 다양한 건축 외관을 구성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건축물 위(옥상)나, 베란다 등에 태양광 모듈을 얹는 방식이 아니라 건자체 자체가 태양광 모듈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림 10] BIPV 시스템



BIPV는 건물의 어느 부분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의 모듈이 요구되며, 옥상 또는 지붕에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모듈이, 창문에는 DSSC가 적합하다. (주)이건창호의 BIPV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탑승동인 제2교통센터에 적용되어 있는데, 제2여객터미널은 자연채광·신재생에너지 등 최고 성능의 건자체를 갖춘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 건축물로 제1여객터미널과 비교해 40%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공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2교통센터 지붕 위에는 (주)이건창호의 BIPV 시스템 402.48kW가 부착되어 있으며, 여객터미널 지붕 전면에도 PV시스템 1,236kW가 부착되어 있다. BIPV와 PV의 총 용량은 1,638.48kW로 이 시스템을 통해 하루 약 5,243kW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약 51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이다.

BIPV는 규격 제품이 아닌 외관·채광·외부 조망 등을 고려해 건축물에 맞춰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술력을 요구하며, (주)이건창호는 남극 장보고 기지, 서울 신청사, 삼성 파르나르 타워 등을 시공하면서 수년간 쌓아온 설계역량과 다양한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 형태의 BIPV 시공에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 프리미엄에 실용성을 더한 마루

이건산업(주)의 이견마루 브랜드는 최근 라인업 확장과 함께 디자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시장의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가의 수입마루나 프린팅에만 의존해왔던 셰브론 패턴마루를 2017년 자체 생산하였으며, 최근에는 프리미엄 광폭 강마루인 ‘세라 플렉스143(SERA flex 143)’, 천연마루 ‘포레스타(FORESTA)’ 등의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이로 인해 이견산업(주)는 ▲ 프리미엄 원목마루 ‘라르고 테라(LARGO TERRA)’, ‘라르고 솔레(LARGO SOLE)’, ▲ 원목마루 ‘카라(CARA)’, ▲ 천연마루 ‘포레스타(FORESTA)’, ‘제나(GENA)’, ▲ 강마루 ‘세라(SERA)’, ‘세라 플렉스(SERA Flex)’ 등 더욱 세분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포레스타는 프리미엄 고가 마루에 친환경을 접목한 제품으로, 한국형 바닥 난방에 특화된 천연마루로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다.

제품 생산은 친환경 원자재 수급부터 모든 공정이 100% 국내에서 진행되며, 먼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합판과 우수한 무늬목을 선별해 사용한다. 원목의 질감과 무늬결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브러시 가공으로 표면 마감을 처리했으며, 규격은 폭 165mm, 길이 1,200mm, 두께 10.5T로 공간을 넓고 시원하게 보이게 하는 최신 광폭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8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오크 에스, 오크 폼, 애쉬 블론드, 티크 에스 등 4가지 내추럴 수종을 비롯해 4가지 착색 제품이 함께 출시되어 있다.

[그림 11] 이견마루 제품



* 출처 : 이견산업(주)

■ 사업별 전문 기술연구소 운영을 통한 R&D 역량 강화

동사는 국내시장에 적합한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고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결대상 종속 기업들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과제 등의 수행을 통하여 미래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담당조직은 관련 분야 석·박사 출신 등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호, 진공유리, 합판, 마루 등의 분야로 나누어 연구개발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국내 주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2022년 3월 등록 기준)

구분	등록(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권	10-1501205	창호
	10-1639879	밀봉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진공창호용 무연 실런트 및 그 진공창호
	10-1729668	밀봉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진공유리용 친환경 실링재
	10-1876516	결로방지용 진공유리 창호
상표권	40-1846932	이건 시스템월 Eagon System Wall 등 상표권 106건

*출처 : 특허청,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표 6]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용

(단위 : 억 원)

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개발비용 계	28	32	27	22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0.9%	0.7%	0.7%	0.5%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표 7]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개발 실적

사업부문	연도	과제명	기대효과
창호	2019	마감디자인 변경 가능한 맞춤형 고단열 창호 E.View 개발	신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
		AL 고단열 시스템창 3종 개발 (EWS 95 TT, EWS 95 OW, ESS 250 LS)	
		AL 슬림 시스템창 2종 개발 (EWS 75 TT, EWS 75 OW)	
	2020	RAUM 슬라이딩 및 스윙도어 성능 개선	
		북미용 멀티트랙 슬라이딩 개발(ESS 70 SD MT)	
		AL윈도우월 개발(EWW 150)	
목재	2021	AL 고단열 시스템창 부자재 개선(EWS 95, EWS 75)	신제품 개발
		AL-PVC 복합 시스템 이중창 개발(ESS 300 LS)	
		북미용 슬림 LS 개발(ESS 145 LS)	
	2020	북미용 멀티트랙 슬라이딩 개선(ESS 70 SD MT)	
		AL 고단열 시스템창 제품 개선(EWS 95, EWS 75)	
		AL DOOR 2종 개발(EDS 75, EDS 95)	
파레트	2019	루프월 합판 출시	신제품 개발
	2020	프리미엄 원목 마루 브랜드 라르고 출시	
	2021	강마루 세라 플렉스 제품 다양화 (신규 패턴 개발)	
파레트	2019	고중량 유리적재 합판박스 개발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IV. 재무분석

높은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 추진 중

동사는 높은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며, 정부 주도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아파트 건설, 신도시개발 등의 정책으로 인한 국내 건설투자 회복 및 신규 분양 확대와 미국의 주택시장 성장 등으로 창호 및 목재 부문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된다.

■ 창호 및 목재, 지주사업 부문 등의 양호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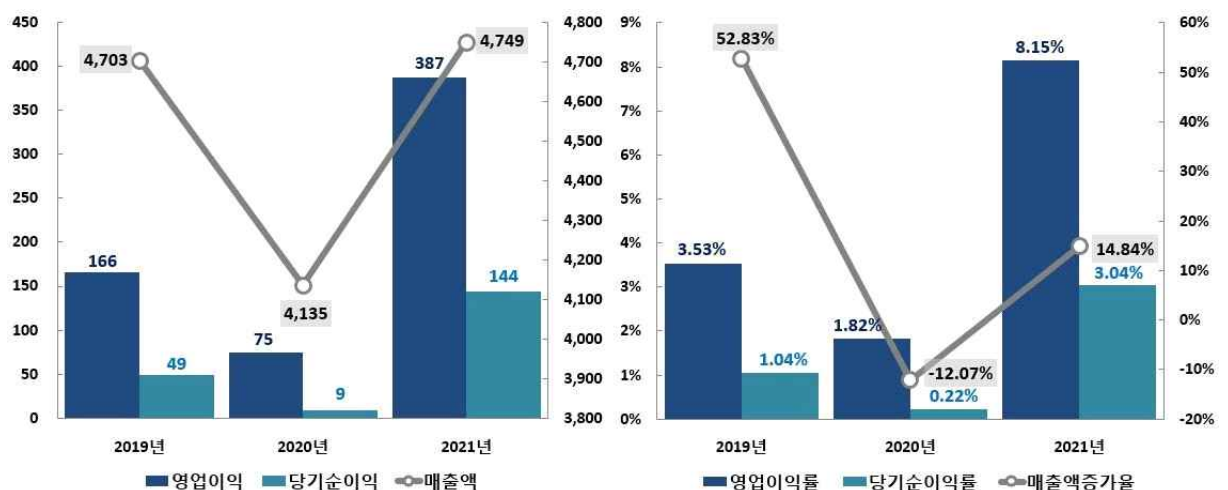
동사는 2017년 4월 창호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이건창호를 설립 후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종속기업인 (주)이건창호는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부문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으로, 주택용창호, 빌딩용 및 태양광창호를 대리점으로 납품하거나 건설회사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파레트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이건그린텍과 주택용 합판 제조와 마루 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이견산업(주) 역시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동사는 2019년 매출액 4,703억 원, 2020년 4,135억 원을 기록한 이후 창호 및 목재, 지주사업 부문 등의 양호한 성장으로 인해 2021년 매출액이 4,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4% 증가하며 외형 성장하였다. 또한, 영업이익(순이익)은 2019년 166억 원(49억 원), 2020년 75억 원(9억 원), 2021년 387억 원(144억 원)으로 2021년 증가하였으며, 이는 원가구조 개선 및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였고, 법인세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은 흑자전환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사는 높은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며,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아파트 건설, 신도시개발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건설투자 회복 및 신규 분양 확대와 미국의 주택시장 성장 등으로 창호 및 목재 부문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는 바, 동사는 향후에도 매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재무구조 개선 중

동사의 총자산은 2020년 말 6,453억 원에서 2021년 말 6,929억 원으로 7.38%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19년 말 138.85%, 2020년 말 132.49%, 2021년 말 134.26%이고 유동비율은 2019년 말 57.51%, 2020년 말 63.73%, 2021년 말 67.00%로, 동사의 재무구조는 개선 중이나, 장단기 재무지표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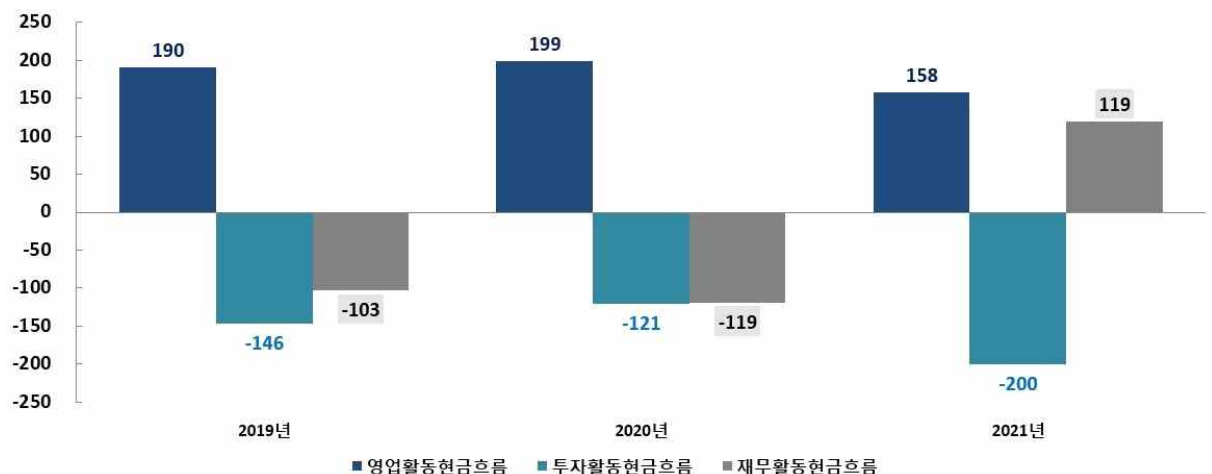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현금창출능력 보유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정(+)의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유형자산의 취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해 2019년, 2020년, 2021년 연속 부(-)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또한,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19년, 2020년 연속 부(-)의 흐름을 보이다가, 차입금의 증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등으로 2020년 부(-)에서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그림 14] 현금흐름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지속 개발 중

동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에 우수한 기밀 및 단열 성능을 갖춘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 (주)이건창호, 181억 원 규모 개포4단지 재건축 창호공급 수주

동사의 주요 종속회사 중 하나인 (주)이건창호는 2021년 2월 181억 1,800만 원 규모 PL(플라스틱) 창호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2019년 (주)이건창호의 전체 매출액 1,520억 원 대비 1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상대방은 GS건설이며, 공급대상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공급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

[표 8] 창호공급 수주 개요

구분	내용
판매 및 공급계약 내용	PL창호 공사(개포주공 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약금액 총액(원)	18,118,319,260
계약상대방	지에스건설(주)
계약기간	2020년 11월 28일 ~ 2023년 2월 28일
계약(수주)일자	2021년 3월 12일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이견산업(주)에 약 363억 원 규모 채무보증

2021년 6월, 동사는 종속회사인 이견산업(주)에 대해 약 363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13.08%에 해당하며, 보증기간은 2021년 6월 29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채무보증은 이견산업(주)의 기존 채무보증금액 만기 연장 건이며, 기존 채무 만기 연장으로 인해 차입금액의 120% 한도 보증제공에 관한 것이다.

[표 9] 채무 보증 개요

구분	내용
채무자	이견산업(주)(종속회사)
채권자	산업은행 부천지점
채무(차입금액)(원)	30,262,000,000
채무보증금액	36,314,400,000
채무보증기간	2021년 6월 29일 ~ 2022년 7월 31일
채무보증총액(원)	152,911,568,000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평가데이터(주) 재가공

■ (주)이건창호, 고품격 커튼월 파사드 시리즈 'EFS 40' 출시

2022년 1월, (주)이건창호는 최근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에 우수한 기밀 및 단열 성능을 갖춘 커튼월 신제품 'EFS 40'을 출시했다. (주)이건창호의 '파사드 시리즈'는 2020년 8월 출시했던 EWW 150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EFS 40까지, 빌딩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파사드를 위한 라인업이며, 'EFS 40'은 오랜 기간 창호화 커튼월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주)이건창호 연구진들의 설계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특히, 커튼월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수평바와 수직바 결합 구간의 누수에 대비하기 위해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소재의 Intersection Gasket을 새롭게 개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제품의 누수 방지는 물론이고, 기밀 성능까지 강화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성인 기준 엄지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얇은 입면 두께가 특징인 'EFS 40'은 슬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존 자사제품 대비 유리 물림 깊이가 충분히 확보되어 창틀에서 유리가 탈락하거나 유리 사이의 간봉이 노출되는 문제에서 자유롭다. 무엇보다 유리 두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유리사양에 대응이 가능하며, 여기에 고단열 Structure Glazing 전용 창인 EWS 60 SG를 추가 개발하여 도어 적용부분의 단열성능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프로파일에 특수 고안된 멀티라인과 다양한 디자인의 어댑터 조합은 건물의 입면을 더욱 매력적으로 연출해주며, 무엇보다 이 조합은 건물의 코너 부분을 더욱 슬림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어 미니멀한 건축 디자인에 적합하다.

[그림 15] 이건창호의 파사드 시리즈 'EFS 40' 이미지



*출처 : (주)이건창호 홈페이지

■ 동사의 ESG 활동

ENVIRONMENTAL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우리의 다음세대에 녹색환경이 온전히 물려질 수 있도록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자원, 제품, 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제품(그린 파레트용 친환경 수지, 마루 대판용 친환경 접착제, 합판 생산성 개선용 친환경 접착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사용이 제한되는 법정 규제물질과 자발적 제한물질을 엄격하게 관리·검사하고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CIAL

동사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사들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환경표지인증, KS 인증 기반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사는 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여금,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각종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제, 구내식당, 사내동호회, 통근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임직원의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동사는 1990년부터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인 ‘이건음악회’를 30년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의 실력과 음악가들을 초청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높은 수준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음악계 꿈나무들이 세계적인 음악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2009년부터 시 각장에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 후원을 통해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눔 활동으로는 연 4회 창덕궁을 방문해 창덕궁 청소 등 한국 문화재 가꾸기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연 4회 다문화 가정 및 위탁·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문화캠프 ‘이건 걸쳐프렌즈’, 남구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사랑의 집고치기, 연탄 배달,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프로젝트, 쾌적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한 ‘푸른 나눔의 숲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림 16] 동사의 지역사회 발전 활동들

[창덕궁 문화재 가꾸기]



[이건음악회]



[사랑의 연탄 배달]



출처 : 동사 홈페이지

GOVERNANCE

동사의 이사회는 사업보고서(2021년 12월) 기준 등기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인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유지하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상법 제 542조의 11에 의거하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이므로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님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상근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현금흐름상황,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주주 권익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나,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며, 소통 채널 다양성 확보, 정보 접근 등의 권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최신 소개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7] 동사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 네이버 금융(2022년 3월 22일)